

후진으로 승선하려다...완도서 일가족 3명 참변

여객선 타려던 차량 바다 추락 70대 부부와 손녀 안타까운 죽음 할아버지 생일 맞아 고향가다 사고 편의 위해 후진 주차 유도 '위험' 부족한 안전관리 요원도 문제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에서 여객선(차도선)에 승용차를 싣기 위해 후진하다 차량이 바다에 빠져 일가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은 안전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선박회사 측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차량의 후진 승차 등 일방적인 탑승을 유도한 점이 사고를 불렀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 완도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께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에서 A(76)씨가 몰던 SM3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와 그의 아내 B(여·73)씨, 손녀 C(여·29)씨가 모두 숨졌다.

이들은 A씨의 생일을 맞아 완도군 금일읍 고향집에 가려고 차를 후진해 여객선에 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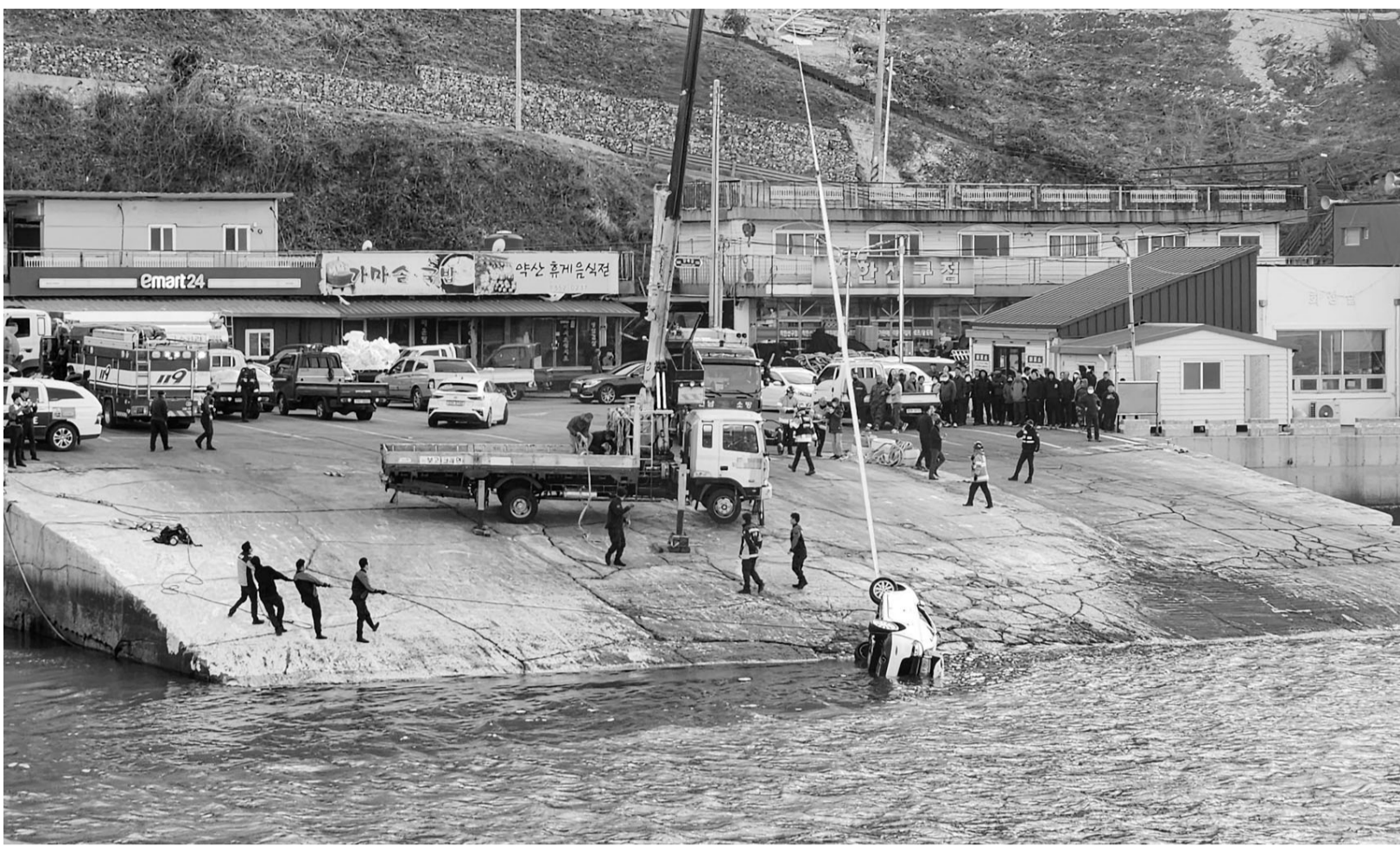
A씨와 B씨는 자주 광주의 병원에 진료를 보기 위해 왕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지난 18일에도 광주에서 진료를 마치고 20일 A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손녀 C씨와 함께 고향집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아버지 김모(53)씨는 "우리 딸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자라 애투하다"며 "할아버지 생일을 맞아 완도에서 생일 잔치를 하기 위해 광주에서 내려올 정도로 흥겨워했다. 이런 변을 당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우리 부모님도 평생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사셨고 우리 딸은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착하다는 말을 듣고 자라,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며 "숨 쉴 기운조차 없다"고 울었다.

해경측은 이들은 차도선(여객과 동시에 개량된 적재 구역에 차량 등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에



완도소방 등이 지난 18일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에서 추락한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완도해경 제공>

차량을 싣기 위해 후진을 하다 정박해 있는 차도선 옆으로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양 당시 자동차의 기어가 '중립(N)'에 놓여있던 것을 토대로 배가 접안하기 위해 조성된 경사면으로 차가 미끄러지면서 운전미숙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지역의 수심은 10(밀물 시)-4(썰물 시) m지만 사고 당시에는 7m가량 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유족들은 선박회사의 안전관리에 불통을 터트리고 있다. 선박회사 측은 도착지에서 하역을 빨리 하기 위해 승객들이 모두 차량에 탑승한 채로 후진으로 승선을 유도해 사고를 키웠다는 것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여객선(카페리, 차도선 등)에 차량을 싣을 때 반드시 후진하거나 전진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다만 폭이 좁은 배일 경우 선박 내부에서 차량을 돌릴 수 없는 데다, 하차할 때 대부분 오르막길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행적으로 후진해서 차를 싣는다"고 말했다.

'승선시 모든 사람이 차를 타야한다'는 규정도 없지만, 인근 주민들은 신분증 검사를 쉽게 하고 승선시 차량과 사람이 몰리면 안전관리가 까다롭다는 점에서 모두 탄체로 승선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량을 빨리 내리려고 하기 위해서 선원 등이 후진 주차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명을 요구한 한 여객선 관계자는 "여객선 입장에서는 여러번 운행을 해야 수익이 나는데, 배에서 차량이 빨리 나가지 못하고 정체돼 있으면 시간이 지체돼 그만큼 손해다"며 "신분증 검사도 한번에 하기 위해 차량에 다같이 타고 있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부족한 안전요원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A씨 가족이 승선하려던 배는 오후 4시 30분 출발하는 S호(209급, 승용차 기준 26대 선적가능, 승선 가능인원 173명)로 선원이 3명뿐이다. 선장과 기관사를 제외하면 단 한명의 선원이 모든 안전관리와 고박(선박에 고정시키는 것)까지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완도해경은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자를 확인하고 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해경은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자를 확인하고 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노래방서 여성 종업원 살해 고흥경찰, 60대 남성 붙잡아

고흥의 노래방에서 흥기를 휘둘러 여성 종업원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흥경찰은 고흥군 도양읍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을 살해한(살인) 혐의로 A(64)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20분께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종업원 B씨에게 흥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에게 흥기를 휘둘러 뒤 지해하던 중 노래방 업주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생명이 지장은 없지만,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흥기는 노래방에 있던 것이 아니라 업주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소지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특별한 직업이 없던 A씨가 피해자 B씨와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우발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양동시장 인근 연쇄 화재범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양동시장 인근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르고 차량·자전거를 잇따라 훔쳐 탄 A(43)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일반자동차 및 현주건조물 방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특례처리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께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인근에 주차된 1t 화물차 적재함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소시켰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 시동이 걸린 채 정차해 있던 1t 화물차를 훔쳐 타고 50여m 이동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냈으며, 이후 차를 버리고 복귀 입증 발달대교 인근에서 자전거를 훔쳐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12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7시 30분께 복구 용봉동 고시원에 숨어 있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조현병을 갖고 있으며, 특수폭행죄로 수감됐다가 지난 14일 출소한 이후 약을 먹지 못해 환각 등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태 기자 yjyou@

이번엔 낙엽 태우다...순천·보성 등 산불 잇따라

광주·전남에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쓰레기·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9시 20분께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아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2시간여 만에 주불이 잡혔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불 1단계'까지 발령돼 약 16ha(4만 8400평)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밤 사이 대치마을 등 인근 주민 59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야간에 화재가 발생해 헬기동원이 힘들고 협준한 암석지 지형에 최대 풍속 초속 14m의 강한 바람까지 동반돼 진화에 난항을 겪었다.

순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주민 A(67)씨가 주거지 인근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불길의 번진 것으로 보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19일 새벽 5시 50분께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 아산에서도 농업폐기물을 소각하던 중 불이 옮겨 붙었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등을 동원해 1시간 5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이에 앞서 지난 18일 오후 3시께는 화순군 청풍면에서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이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3ha(9075평)의 임야를 태운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돼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한강공원 대학생 실종·사망사건 '악플러' 벌금형

서울 한강공원에서 지난 2021년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 악성 댓글을 게시한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여·44)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사망한 대학생 손모씨 친구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회원이 올린 손씨 관련 글에 '○○한테나(손씨)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빌라고 전제라. 지(손씨의 친구)가 불러서(손씨가) 죽었는데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변호사 뒤에 숨어 비겁하게 행동하고 있다. 실종 다음 날 신발을 버리고, 식구들 휴대전화를 바꾸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글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رن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small>기초반, 중급반</small>		전원주택 (1채) → 7,000만	신축 원룸 (상가) 매매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p> <p>▶ 경매 물건 추천 ◀</p> <p>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광산구 신가동 (상가빌딩) ▶ 감정가 13억8천 → 최저가 9억7천 북구 신안동 (상가빌딩) ▶ 감정가 50억 → 최저가 28억 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감정가 4억 → 최저가 2억8천 광산구 수완동 (토지) 486평 ▶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8천 남구 임암동 (상가 5층) ▶ 감정가 3억1천 → 최저가 2억2천 김제시 서암동 (숙박시설) ▶ 감정가 23억 → 최저가 8억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24억</p>		<p>(토지 분양 중) 장성댐 5분, 광주 20분, (6M도로 접)</p> <p>① 세컨하우스 ② 소형 주택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④ 주말 하우스 최고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p> <p>★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p>	<p>▶ 충남 당진시 대산항, 화력발전소 5분 ▶ 임대걱정없음 ▶ 월수익 → 750만 (년9,000만)</p> <p>시세 - 19억 금매 - 14억5천 (용7억)</p>
010-2614-9801		010-6670-9800	